

1. 제자에서 사도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열 두명의 제자들을 따로 선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와 '사도'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중에서 예수님이 따로 선발한 12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사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반면,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께 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보냄받은 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놓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은 예수님을 잘 배워감으로 예수님의 관점과 생각을 갖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도의 삶을 거절할 때

가롯 유다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도의 직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직무'란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배워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체득하여 부름받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동안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배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재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위에 내 이름을 위치시킨다면 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에 덧입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갖으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배워가기를 거부한다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열 두 제자의 이름중 누구의 이름위에 덧입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롯 유다의 이름위에 덧 입혀질 것입니다.

순모임 질문 (7월 30일 설교)

- 1) 이번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오늘 설교 말씀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 3)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4) 이번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일-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2. 2023년 표어 - "씨를 뿌리고"
3. 성찬식 -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4. 비전헌금 - 다음주는 비전헌금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5. 고 3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중보기도합니다. * 김하은, 박성현
6. 매일성경 판매 * 가격 : 5,000원
7.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 - 31주차 배부합니다.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선교지 소식

김요한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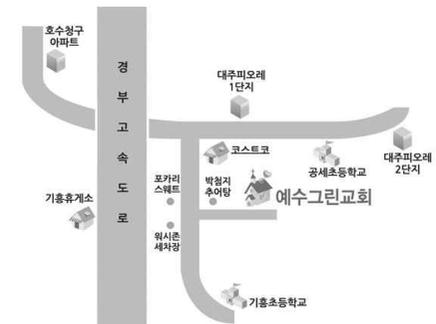
3월 27일~30일에 목회자아카데미 사역을 대면으로 은혜중 잘 마쳤습니다. 모두 48명이 참석하여 '레위기 5대 제사와 모세의 장막 그리고 현대 예배에 적용'을 주제로 잘 배우고 자기 사역자로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7월 첫주에 '설교와 영성'을 주제로 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c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로 돌아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시오.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 양육 프로그램 안내 ●

1. 새가족과정(green family)
2. 일대일 동반자과정
3. 일대일 양육자과정
4. 성서지리와 역사
5. 행복한 부부학교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3부, 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1층 새싹홀
꿈땅예배	주일 오전 11:00	3층 비전홀
파워웨이브	주일 오전 9:00	3층 비전홀
새벽기도회(월~금)	매일 새벽 6:00	본당
수요 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본당

● 섬기는 분들 ●

- 목사** 나계수, 김대중
- Pianist** 김효성, 박소영
-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테기(인도네시아)
이은주(캄보디아)

나계수 목사는 명지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웅공제일교회를 거쳐 수원 온누리비전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5년에 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그린교회는 2010년 7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공동체, 삶이 변하는 제자양육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혁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섬김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2023 씨를 뿌리고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혁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2023년 7월 30일 / 제 14권 31호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설교 : 나계수 목사
예레미야 강해

수요 성경통독 예배
당분간 쉽니다.

수요 순장모임
저녁 8:00
인도 : 나계수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8:00
렘 15:1~9
'확정된 심판'
설교 : 나계수 목사

순예배
순 방학기간입니다.

인도 : 나계수 목사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

선포
부름 우리 왕이여 / 임재 다함께
..... 사도신경 다함께

찬양 다함께
통성기도 다함께

기도 김영진 집사(1부/2부)

광고 인도자
..... 종으신 하나님

설교 1부/2부 녹 6:20~26 나계수 목사

"가난, 복인가 저주인가"

결단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다함께

★ 헌금기도 인도자

★ 축도 인도자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 8월 6일 대표기도 : 박상규 집사(1부/2부)

* 8월 13일 대표기도 : 박완희 집사(1부/2부)

*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헌금위원 : 남정혜 / 신소라